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62.23	↑ 코스닥	847.49
	(+37.29)		(+6.68)
↓ 금리 (미국 9년)	3.115	↓ 환율 (원/달러)	1380.30
	(-0.013)		(-0.10)

유통업계 허리띠 졸라매  
SSG닷컴·롯데쇼핑 등  
희망퇴직 단행 02



## AI 등 미래사업에 우호증진까지 재계 총수들 '글로벌 비전' 실현

재계 총수들이 세계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국가간 우호 증진을 위해 힘쓰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한 그룹의 핵심 사업 점검을 위해 미국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직접 제안한 튀르키예 앙카라에 있는 '한국공원' 개선 프로젝트가 마무리,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7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SK라이프 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했다. SK라이프 사이언스는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으로, 최 회장은 뇌전증 혁신 신약인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XCOPRI)의 미국 직판 상황을 점검했다.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는 최근 총 처방 환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뇌전증 영역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신약이다. SK바이오팜은 최근 글로벌 빅파마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표적단백질분해제(TPD)의 핵심기술 보유사인 SK라이프 사이언스랩스(구 프로테오반트)를 지난해 인수한 뒤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회장은 구성원들을 격려하면서 "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추진이 국가안보정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SK라이프 사이언스 본사 방문 후 최 회장은 조지아주 커빙턴시에 위치한 애플리크를 찾아 세계 최초 글라스 기관 양산 공장을 둘러보고, 사업 현황을 살폈다. 애플리크는 SKC가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글라스 기관 사업을 위해 2021년 설립한 자회사다.

애플리크는 세계 최초로 글라스 기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글라스 기관은 반도체 패키지의 데이터 속도와 전력소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반기 중 고



최태원 회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뉴저지에 위치한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 SK라이프 사이언스 본사를 찾아 바이오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SK



지난달 '6·25 전쟁 74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한 한-튀르키예 주요 인사들이 한국공원 내 한국식 정자인 '우정의 집'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최태원 SK그룹 회장  
SK라이프 사이언스 본사 찾아  
세노바메이트 직판상황 점검  
빅테크 CEO들 잇따라 회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튀르키예 한국공원 새단장  
한국전 참전 용사 희생 기려

객사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 회장은 출장 중 만난 빅테크 CEO들에게도 글라스 기관의 기술 경쟁력을 소개했다.

지난달 22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 최 회장은 앞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CEO 등을 잇따라 만나며 IT 소프트웨어 파워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날 현대차에 따르면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도심의 한국공원도 준공식을 갖고 새롭게

탄생했다. 1만㎡ 규모의 한국공원 공원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 군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튀르키예 건국 50주년인 지난 1973년 조성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한국공원을 찾은 뒤 개선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후 지난해 9월 프로젝트에 착수해 10개월 간 개선 프로젝트를 벌였다.

공원에는 불국사 석가탑을 본떠 만든 '한국전쟁참전기념탑'이 있으며, 탑을 떠받친 지대부 벽면에는 전사자 72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탑을 중심으로 기와 지붕을 얹은 관리실과 휴식을 위한 벤치 등이 설치돼 있으나, 개장 5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및 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었다.

개선 프로젝트에 따라 한국공

원의 상징인 참전기념탑은 그대로 두고 상단부 오염 및 번색 부위 세척, 하부 재도색 및 기단부 파손 부위에 대한 석재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양국 국기가 그려진 공원 담장과 벤치 및 캐노피 등 휴게시설도 새로 단장했다.

쉽게 갈라지거나 파손이 발생했던 기존 공원 바닥 포장도 고급스럽고 내구성 높은 대리석으로 전면 교체했다. 노후한 관리실은 한국식 한옥 건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새 단장을 마친 한국공원은 지난달 25일 '한국전쟁 74주년 추모행사'를 계기로 문을 열었다.

현장에 참석한 튀르키예 정부 인사와 시민들은 '한국의 미(미)'를 보여주는 정자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등 개선 프로젝트 후 청결하고 아름다워진 공원 시설을 높이 평가했다.

/양성운·김서현 기자  
ysw@metroseoul.co.kr

##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가 오는 7월 17일(수) 오후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에 금융·자산시장의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없이 최고가를 경신중인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커진 덩치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세대의 미래 삶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을 궁리해야 할 때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을 주제로 당면한 고민을 풀어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정재훈 KB부동산 박사,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팀장 등 자산관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중장년층부터 청년층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자산 밸류업' 전략을 모색 합니다.

- 행사명 : '2024 100세플러스 포럼'(시즌 2)
- 주 제 :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 일 시 : 7월17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30~ 14:00)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등록 : '2024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26, (www.metroseoul.co.kr),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서울대 제외 38개 의대 수시 '등록포기자' 발생

19개대 100% 모두 포기  
의료교육 수준저하 우려

의대 정원 대폭 확대로 의료교육 부실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입시에서 기존 정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가합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쏠림' 심화 외에도 의료교육의 전반적 수준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L7면>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정원은 1658명, 추가 합격 규모는 167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추가 합격은 최초 합격생이 등록을 포기함에 따라 정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순위 성적자에게 순서대로 등록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의대에서 모두 '등록포기자'가 발생하며 추가 합격자가 생겼다. 수시 최초합격자 100%가 모두 등록을 포기한 의대도 19곳에 달했다. 일부 대학은 의대 정원의 2~3배까지 추가합격자로 정원을 채웠다.

이때문에 지방이나 중하위권 의대의 경우 이전보다 낮은 성적의 학생들에게도 문호가 열렸지만 의료교육의 수준은 낮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김여사 문자 논란'에 "전대에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 나경원, '김건희 문자·연판장' 공방에 "원·한 덩어리" 보여" /사진 뉴스스

▲ 한총리, 경제선지능 청년 격려 "조금 느려도 성실한 사람 인정받는 사회"  
▲ 이인주, 최고위원 출마선언... "비상시 국 선봉에서 민주당 집권 길 열것"



▲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조국 보복' 프레임 씌우지 말라" /사진 뉴스스  
▲ 파리올림픽 안전 사수... 정부, 현지 임시영사사무소 설치